

사진가자의 단상

“에너지를 높여라”



어린이들이 모처럼 체험 학습에 나섰다. 지난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에너지 체험전'이었습니다.

5회째를 맞은 이번 체험전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소개하는 에너지 정책관을 비롯해 석유관, 가스관, 전력관, 광물 자원관, 원자력관, 원자력문화관, 지역 난방관, 신재생에너지 절약관, 광해 관리관 등 10개의 주제관이 마련됐습니다.

또 지식경제부와 10개 에너지 공기업이 참여해 만든 에너지·자원별 전시관과 에너지 종합 학습장도 있습니다.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수소연료전지 만들기, 태양전지 모형비행기 만들기 등 체험 학습장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그곳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로봇도 보고, 에너지 버스도 보고, 신나게 폐달을 밟으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자전거도 타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재밌는 건 단짝들과 함께 힘을 모아 발을 뚫뚫 구르는 '디디알'(DDR·Dance Dance Revolution) 게임입니다. 전자오락실에서는 춤 실력을 겨루는 디디알 게임기와는 다릅니다. 여기는 에너지를 체험하는 곳이기도요. 힘을 모아 땀을 뺀다면 그 힘이 에너지가 되는 '에너지 디디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땀을 뺀 때마다 에너지 눈금이 올라갑니다. 우리 힘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재미있지만 힘도 듭니다. 그만큼 에너지를 아껴써야 함을 배웁니다.

땀땀 체험 소감을 씁니다.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겠다”고, “안 쓰는 전기 코드를 뽑겠다”고.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의 유머

▲그 댐 그랬지

30대와 60대의 후보가 선거에서 맞붙었다. 유세를 하던 30대 후보가 말했다. “기성세대의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TV를 보고, 불가능할 것이라던 우주여행도 했고, 컴퓨터로 하나의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던 60대 후보가 조용히 말했다. “자네 말이 옳지,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왔어!”

▲이런 실수가

친구들이 비디오 가게에 갔다. 비디오를 고른 친구들은 우르르 몰려 한 친구의 집으로 갔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뒤에야 친구들은 테이프를 비디오 가게에 두고 왔다는 것을 알았다. 친구 한 명이 비디오 가게에 전화해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디오 테이프 제목이 뭐죠?”

그러자 그 친구가 멍청한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기 그제, ‘멍청이’요.”

▲꼬마의 판단

경찰관이 유치원생들을 상대로 납치 예방을 위한 강의를 하러 갔다. 강의를 끝난 후 경찰관이 준비해간 시민들의 사진들을 꺼냈다. 경찰차 옆에 서있는 경찰관 사진을 들고 질문했다. “이 사람은 안심할 수 있을까요?”

그 사진을 본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네”라고 외쳤다. 이번에는 자가용 옆에 서 있는 한 중년 여성의 사진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이 사람은 따라가도 될까요?”

아이들은 모두 “아니에요!”라고 외쳤다. 마지막으로 한 남자가 트럭 옆에 있는 사진을 들어보이며 경찰관이 물었다.

“이 사람은 따라가도 될까요?” 이번에도 “아니요!”라는 대답이 나왔지만 한 아이만 “예”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경찰관이 주의사항을 일러주며 다시 물었지만 그 꼬마는 트럭 옆의 남자를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는다면 왜 이 사람은 따라가겠다는 거니?”

그러자 꼬마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아빠니까요!”

▲흥부와 놀부 뭇생기기로 소문난 흥부 아내가 밭을 밟고 호수에 빠졌다. 그러자 산신령이 미녀 셋을 데리고 나타나 흥부에게 물었다.

“이 중 누가 너의 마누라냐?” 흥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무도 아닙니다. 제 마누라는 미녀가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은 흥부를 본 산신령은 미소를 지으며 미녀 셋을 데리고 가라고 말했다. 이 소문을 들은 놀부가 미녀로 소문난 아내를 호수로 데려가 일부러 빠뜨렸다. 한참 뒤 모습을 드러낸 산신령은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는 재빨리 물속으로 사라졌다.

“흥, 고맙다! 놀부야!”

▲누나의 비밀 5살짜리 꼬마가 목욕탕에서 나온다 누나를 좋아하는 동네 형을 만났다.

“형 근데 형은 왜 여탕에 안 들어가?” “형처럼 다 큰사람은 남탕에 들어가야 하는 거야.”

그러자 꼬마가 웃으며 말했다. “여탕에 들어가면 누나의 비밀도 알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들은 형이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조용히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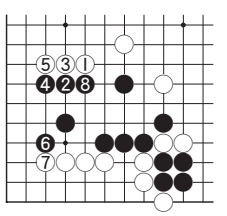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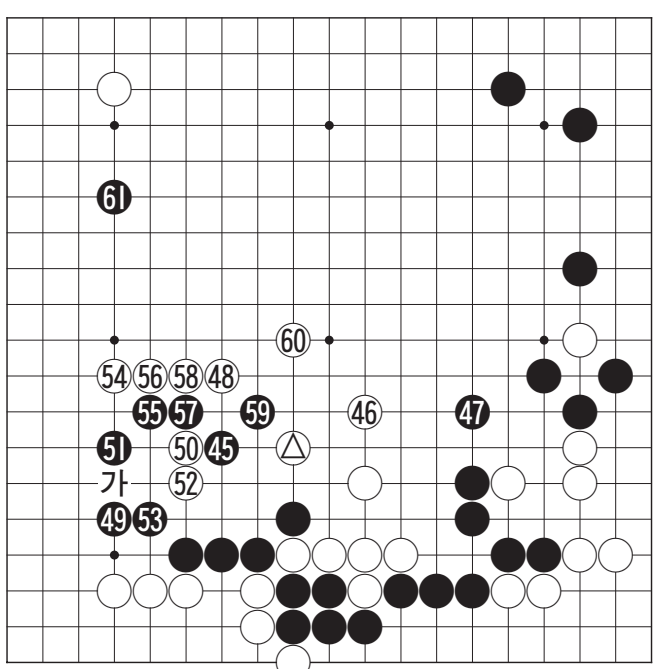
“근데 너희 누나 비밀은 뭐야?” “그게 말이야~ 우리 누나는 여자야!”

제2회 광주바둑협회장배

물거품이 된 공격

초중부 최강부 결승전 4보(45~61)

白 강민후 3단 黑 김태훈 3단 (조봉초 6) (신창초 6)



참고도

백이 크게 나가기도 하면 대세를 잃게 된다. 김태훈군은 일단 흑 45로 급소를 피했는데 이 수로는 49에 먼저 둘 수도 있었다. 그러자 하면 백 48로 둔 수로도 '가'로 집을 벌면서 흑을 추격할 수도 있었는데 강민후군은 두텁

게 두면서 흑을 압박하고 있다. 백 50으로 불인 수가 부분적으로는 좋은 감각이었으나 지금은 '참고도'와 같이 백 1부터 5까지 두텁고도 평범하게 막아 대범하게 뒤야 했다. 흑 8 다음 좌상귀를 굳히면 우세했다. 김태훈군이 50에 응수를 하지않고 흑 51로 비킨 것이 좋은 착상으로 59까지 선수를 잡게 되어서는 전화위복의 호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흑 61로 좌상귀를 걸칠 타순이 돌아와서는 백의 공격이 물거품이 된 장면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 해설위원>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리빙 센스 얼굴체조
혈액순환을 도워서 지방대사가 활발히 이루어 지도록 해준다.
1. 피부 깨우기 : 손바닥을 이용하여 양 볼과 턱을 가볍게 톡톡 두드린다.
2. 얼굴 감싸기 : 손바닥으로 얼굴 전체를 감싸고 꼭 누른다.
3. 귀 밑 눌러주기 : 귀와 턱이 이어지는 부분에 속 들어간 곳을 손가락으로 약간 아플 정도로 누른다.
4. 활짝 웃기 : 입을 꼭 다문 상태에서 입 양끝에 힘을 주고 활짝 웃는다.
5. 볼 풍선 만들기 : 양 볼에 최대한 공기를 불어 넣고 이리 저리 움직인다.
6. 입운동 : 입을 최대한 벌리며 천천히 아이오오우를 발음한다.
7. 피아노 치기 : 손가락 끝부분을 이용해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해 가볍게 두드린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8일(음 9월 30일 辛酉)
36년생 식물이 비료를 받는 듯 모든 일이 순조롭다. 48년생 천지간 흐름을 파악해야 해가 없다. 60년생 불면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37년생 남여 사이에 고통이 있을 수 있다. 49년생 직장에서 불면이 있다. 61년생 부부 사이에 미묘한 관계가 발생한다.
38년생 내 것 고고 누령하는 꼴이다. 50년생 부부 사이에 소사 냉전을 조성할 수도 있다. 62년생 정중동하나 결과가 불미할까 두렵다.
39년생 친구 형제로 인한 고통이 발생 될 수가 있다. 51년생 현 위치에서 만족을 얻어야 하리라. 63년생 겉은 조용한 듯하지만 속 고통은 있다.
40년생 안도의 숨을 들이쉬지만 마음은 불편하다. 52년생 큰 고생은 없지만 큰 득도 없다. 64년생 이성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하루를 조심하라.
41년생 땅은 얼어붙어 신체에 장애가 올 수도 있다. 53년생 눈물 날 일이 생겨 날 수도 있다. 65년생 고역이 가중된 형상이다.
42년생 뒷사람에게 문서로서 사기 당하는 수 있다. 54년생 친구로 인해서 짐채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66년생 아랫사람에게 보시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내어주라.
43년생 뒤처리를 할 사람이 나타나 마무리를 한다. 55년생 타인의 속임수에 동참할까 두렵다. 67년생 주변의 꼬임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44년생 주변의 시끄러움이 나에게 물러온다. 56년생 옛 고통으로 인한 불편함이 신생미로 불편을 가중한다.
45년생 대고는 없다. 57년생 남편과 자녀에게 불리한 입장이 발생될 수도 있다. 69년생 순조로운 진행은 있으나 메인 편에 간섭이 있을 수도 있다.
46년생 구사가 신사로 바뀌어서 괴로움을 주는 형상이다. 58년생 조상에 대한 것이 천천히의 불상사로 연결 될 수도 있다.
47년생 전쟁이 발생한 형국이다. 59년생 가내 내분과 부부 언쟁이 발생하고 이사 변동이 있을 수 있다.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더마플라스트 밴드
수은은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1. Are you serious? 정말?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2. 恥ずかしがりやですね 부끄럼쟁이구나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3. 不错。괜찮습니다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4. 割鬚棄袍(할수기포) 벨 할, 수염 수, 버릴 기, 도포 포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